

<장관 동정>

## 김현미 장관,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와 인프라협력 논의 에콰도르 공공교통건설부 장관 면담 ... 인프라 협력 MOU 체결 추진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0일(수) 서울에서 아우렐리오 이달고 사발라(Aurelio Hidalgo Zavala) 에콰도르 공공교통건설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  - 이 자리에는 오스카 구스타보 에레라 길버트(Oscar Gustavo Herrera Gilbert) 주한 에콰도르 대사도 배석했으며,
  - 공항, 철도, 도로 등 교통분야 인프라 개발에 대한 우리의 경험 및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.
- 이달고 공공교통건설부 장관은 특히 한국의 우수한 공항 및 철도 인프라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,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 국토교통부에 '인프라 개발 협력 MOU' 체결을 제안하였다.
  - 이에 김현미 장관은 MOU 체결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, 실무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를 발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MOU를 체결하기로 약속하였다.
- 김현미 장관은 “오늘의 만남을 통해 한·에콰도르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이달고 장관께서 양국간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.”라고 밝히었으며,
  - 또한, 이 자리에 함께 한 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 (KIND, '18.6.27 공식 출범)를 소개하고,
  - “투자개발사업(PPP) 방식의 인프라 개발 추진 시 KIND와 함께 사업을 적극 발굴·검토하여 양국 간 사업경험 및 기술 교류와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.”라고 강조했다.

2019년 4월 10일  
국토교통부 대변인